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4년 08월 29일)

참석 : 대표이사, 경영심의센터장, 보도센터장, 콘텐츠센터장

위원 : 강문식 위원장, 김대중 위원, 박병희 위원, 김석 위원, 박성주 위원, 박병현 위원,
조애숙 위원, 안인수 위원, 박소정 위원, 박경숙 위원

강문식 위원장

8월 28일부터 세계 박람회장에서 올여름 마무리하는 대규모 행사를 나흘간에 걸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역을 이끌어가는 문화 허브로서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행사 마무리하기를 바라면서 2024년 8월 여수 MBC 시청자위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 MBC 이호인 대표이사 인사말씀 들겠습니다.

대표이사

어제를 시작으로 해서 3일 동안 여수MBC,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같이 하는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또 문화적인 기여도 하고자 마련한 것이고, 이것이 잘 치뤄지고 내년 내후년 이렇게 계속 연례행사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강문식 위원장

주요 부서별로 지난 회기 업무설명과 다음 회계 계획표를 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복현 콘텐츠 센터 보고 들겠습니다.

콘텐츠센터장

8월 정규프로그램, 특집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지속. 8월 30일 전남도지사와 대담 프로그램 녹화 준비(전남동부청사 개청 1주년 기념) 주요 현안 들어보고 소개하는 특집 준비중, 9월 첫 주 방영 예정.

여수 섬특집 계속해서 제작 및 방송 거문도, 백도편 1부, 9월 12일 방송예정, 순천 애니메이션도시 특집 제작 지속, 11월 중 방송 예정, 라디오 특집(지역난임부부프로젝트) 월요일부터 4일 연속 기획으로 방송 중 그리고 4부를 한꺼번에 모아서 60분 정도 분량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추후에 특집 형식으로 편성을 해서 송출예정

섬마을여행사 매일 방송 및 편성, 낭만의 섬 낭도 행간도 하화도 개도 순으로 제작 및 방송 예정.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번 주에 저희 이어서 섬머 뮤직 페스티벌 Y 주간인데요. 그래서 어제 개막식과 쇼 챔피언 생방송에 이어서 오늘은 트로트 클래스 K 트로트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트로트 클래스 공개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중계차 출동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오늘 6시부터 약 3시간 정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여수섬머뮤직페스티벌 Y, 29일 K-트로트페스티벌 트로트클라쓰 공개녹화 중계차 오후 6시부터 3시간 녹화 예정, 30일은 나이트 런(마라톤), 토요일 워터밤 행사 피날레. 태풍으로 인해 강풍 안전사고 유의해서 진행하겠음, 광양만권가족콘서트 이번주 예선, 다음주 본선 공영성, 지역민과 함께하는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9월 예정 여수 섬 특집 안도 섬의 기원과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추가 예정, 트로트클라쓰는 순천시니어클럽 같이하는 폐창클라쓰 녹화 준비중

시청자위원회 의견 반영 관련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지역 인구 소멸의 문제 경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이다. 라는 걸로 라디오 전망대, Y 토론 그다음에 털어부려 시간을 이용해서 좀 이슈에 대해서 반영. 그리고 난임과 불임 출산 이후의 문제점, 사회적 시스템 마련 관련해 라디오 전망대 난임부부 특집으로 이런 어려움들과 대책 대안을 좀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 그다음에 순천 의대 관련한 부분 또 지역 의료 특성화 병원 필요성 관련해 이 부분도 라디오 뉴스 브리핑 시간, 오늘의 이슈 언더독 시간 또 시의회 의원들 나와서 하는 이슈 토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반영함.

강문식 위원장

시청자가 만드는 TV는 MBC와 시청자가 방송을 통해서 사회적인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콘텐츠센터장

네, 이것은 방통위를 통해서 미디어재단에서 후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내가 직접 만든 영상을 방송을 통해서 송출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시청자 분들이 실질적으로 영상 촬영하고 편집해서 완제품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저희 내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송출에 차질이 없는지를 해서 채택 후 방송 송출을 하고 동시에 분당 방송료를 책정을 해서 방통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순천미디어재단이나 이런 데서 많이 좀 제보 영상을 많이 제출했는데 갈수록 조금 이런 것들 약해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위원님들도 또 주위의 영상을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심의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심의에 저촉되는 부분 이런 부분만 없으면 퀄리티는 방송만큼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또 장르도 다큐에서부터 블로그, 에세이 모든 장르가 다 가능합니다.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편성 분량에 맞게끔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장

지역일수록 문화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이 지방에서 청소년도 물론이지마는 성인들까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에서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도센터 보고 부탁드립니다.

보도센터장

이번 달에는 순천대 의대 유치가 가장 뜨거운 주제로 취재를 통해 다양한 보도 진행. 특히 저 김문수 의원의 돌발 발언으로 인한 지역 파장, 그 다음에 순천하고 고흥에서 진행된 전남 의대 유치 공모 관련 공청회 개최 뉴스와 주민 반응들 보도함.

여수를 포함해서 전남 동부권 인구 소멸이 굉장히 심해서 70만이 붕괴됨. 앞으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안 모색. 여·순·광 지역 통합에서 인구 소멸 극복 방안 찾아보고 논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뉴스, 폭염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열대야 등 무더위 관련 뉴스 제작함.

기획으로 고흥 소록도에 폐기물이 방치, 환경오염 문제 연속 보도를. 전세 사기 보도 지속 중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광양 지역 문제가 심각, 후속 계속 추진 중. 또한, 신축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포스코 주택단지 활용 문제라든지 방치된 공공청사 대책 부실 관련

보도 실시함.

전라선 SRT가 지금 운행 1주년 의의와 과제, 이야포 폭격 관련해 추가 목격자 취재. 뉴스앤 이슈 토크쇼 박람회장 투자금 상환 문제, 여수 관광객 감소 실태 제작함.

9월 은 국회 개원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주요 활동 살펴볼 예정, 그리고 노인 관련 복지사업 곳곳에서 마찰 발생 복지사업의 문제와 한계 대안 검토 보도 준비 하겠음.

도립미술관 접근성 문제 개선 필요 관련 문제, 외국인 유학생 유입 관련 인식 전환과 시설 확충시급 문제,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개청 1주년 성과와 과제 들여다보는 보도 준비 중.

시청자위원회 의견 반영 부분은. 전남 드래곤즈 관련 사항 취재하고 보도함.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항은 8월 보도 실적에서 말한 여·순·광 통합으로 대안을 찾는 보도 실시함. 순천대 의제 유치 관련해서는 정기현 중앙의료원장 데스크 인터뷰를 진행해 대안 및 해법 탐색함.

시군의회 정치활동 면밀한 취재 필요하다는 내용은 여수 갑을 시의원 원내대표 마찰 문제, 순천시 자원화 시설 설치 둘러싼 시의원 사이에서 찬반 논란 과열되고 있다 내용 보도함.

강문식 위원장

정기현 원장 인터뷰를 봤는데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렇게 좀 위치해 있는 분들을 각각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참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100년의 선교사 뿌리를 찾아 가지고 흔적을 여름밤에 하나의 축제 야행으로 우리 MBC 방송이 프로해 주는 걸 보고 아 그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굴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 했습니다. 고생 많이 받으셨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수시 인구 문제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실제 여수 거주 실인구에 대한 고찰이 필요. 특히, 여수 산단에 근로하는 근로자 상당한 인원의 등록지는 광주와 수도권, 법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법에 어느 지역에 옮겨 가서 6개월 이상 살면 주소지를 반드시 옮겨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는 건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음. 그다음 필요하면 여수시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캠페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실거주 인구를 여수시로 주소지를 옮길 수 있는 방법) 인구유출에 대한 카운팅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여수시에서 생활을 영유하는 실거주 인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강문식 위원장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리더분들이 이슈화돼 있는 일들을 처리할 때는 같이 협의해서 또 의견을 도출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안을 만들어 가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요즘 좀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음.

박병희 위원

주소지는 다른데 두고 일만 하고 있는 것이 공업도시의 특징임. 직장과 주소의 분리 문제 주소지 2개 둘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과 같은 방안 다른 공업도시와의 연계해서 주장 및 연구할 필요가 있음.

여수MBC 전남도 공모 홍보 캠페인 송출 관련해서 순천대 의대 유치를 동의하는 7개 시군의

공식적인 입장과 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 여수MBC가 지역민과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러한 전라남도 의대유치 공모에 대한 캠페인 송출이 지역의 여론으로 비춰질까 우려스러우며 아쉬움.

김석 위원

지역사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공론장에서 토론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편을 가르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답답함.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공론장 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자체가 소멸되고 있음. 정부에서 진행하는 의료개혁은 지역의 공공의료문 제와 정부의 정책방향과 어긋나고 있음. 의대 유치도 중요하나, 지역 의료의 문제와 현실 반드시 필요한 지역 의료 서비스 확충 등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음.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후 2년이 지남. 10월 조사기간 종료,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법률 행안위 법률심사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의문, 여기에 대한 취재 부탁드림.

박성주 위원

지역 언론의 핵심인 인력의 유출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여기에 대한 회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여수MBC 방송국 입구에 걸려있는 민주노총의 현수막 MBC 의견으로 비춰질까 염려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박병현 위원

여수 MBC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들어가서 보는데 홈페이지 내용 자체를 지금도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좋으나 조금 옥의 티는 좀 이걸 좀 간소화해 일목요연한 게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음. 광역시 MBC 홈페이지는 내용들이 많아서 정말 시청자 입장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음.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나오는 주요뉴스 10개가 있는데 절반 정도로 줄이고 좀 눈에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그리고 여수MBC 섬 다루는 콘텐츠가 다양하고 많은 것은 좋으나 홈페이지에 섬 관련 프로그램 나와서 시청자들이 여수 MBC 콘텐츠가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또 하나는 여수MBC에서 방송하지만 타 방송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조애숙 위원

여수수산전문대학(전남대 여수캠퍼스 전신) 통합 이후 유망한 계열, 학과 광주캠퍼스로 이전에 유명무실해진 것이 아닌가 우려됨. 여수시 특성에 맞춰 수산 관련된 학과, 해조류 상품 개발 관련 학과 개발 필요. 수요에 맞춰서 학과가 생기면 시설도 확충될 것이라 생각하고 지역사회에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함. 여수MBC에서 관내 타 지자체 관련 보도하는 단신 뉴스 관련하여 보도시 여수시 자료도 같이 다뤄주길 바람.

안인수 위원

인구유출 문제와 해법을 제시하는 보도가 있어 감사함. 우수한 인력 유치 애로사항 관련 보도 이어진 것 좋았음.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많은 노력이 필요함. 기업 입장에서 여수 산단, 화학산업 업황이 좋지 않아 그만두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고 우려

됨. 또한 지역 내 젊은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부족.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방송국이 협업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생각함.

박소정 위원

뉴스앤이슈 패널이 혼자인 경우에 진행자의 주어진 질문에 패널이 정답만 말하고 있음. 진행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더 많은 내용을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음. 여수MBC에서 제작하는 특집프로그램이 홈페이지에서 사람들이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접근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좋은 콘텐츠가 계속 나오고 있으나 업로드 되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 구독자 수가 적음. 좋은 프로그램 알릴 수 있도록 구독자 확장 방안이 필요함.

보도에서 보면 다양한 주제를 취재하고 보도하고 하고 있음. 다만, 예를 들어 시민들이 내가 정보력이 약하고 내가 아는 게 부족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데 나 저 사람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견에 편승해서 귀를 기울여 버린다고 생각함. 의대 유치 문제에서도 김문수 의원이 의대 유치 위해 공모에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러면 순천시에서 주장하는 것 그다음에 김문수 의원이 주장하는 거 살펴보기 위해 언론에서는 그러면 김문수 의원이 주장하는 것을 심층 취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함. 교육부에서는 어떤 입장인가 보건복지부에선 어떤 입장인가 그렇게 해서 언론의 기능으로 이것을 양쪽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보를 줘야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 김문수 의원의 말이 맞는지 순천시 말이 맞는지 이러면서 그냥 편가름으로 밖에 안 간다라고 생각함. 그래서 언론이 여기에 좀 중간에 개입되어서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음.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갈등이 이슈된 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해서 언론이 시민들에게 좀 객관적인 자료를 던져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게 현안들만 보도되는데 1달에 1번쯤은 미리 예측해서 나가는 보도가 필요함. 민생의 문제 예를 들면 지금 물가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원인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 물가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힘들어지고 있는가 이런식의 보도가 필요함. 그다음에 광양, 순천 등 관내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아파트 분양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데 왜 집값을 안 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도 취재 부탁함.

그다음에 의대 유치 문제를 예로 들면 지금 전라남도하고, 일선 시군하고 의대 유치 문제만 갖고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음. 일반 사람들은 중앙정부와 도 광역단체인 그다음에 그 밑에 시군 간의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함. 그래서 중앙정부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전라남도 광역단체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시군 지방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가도 좀 공부가 되게 해주는 역할에 대해 다뤄주길 바란다.

그리고 뉴스투데이 여자 아나운서 잘하고 있으나 말이 굉장히 빠름. 근데 빠르면서 입 모양하고 발음이 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음. 그리고 뉴스데스크 생활포커스 진행할 때 대본이 흔들리는데 이것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집중이 잘 안됨. 아나운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박경숙 위원

농업, 농촌문제 다루는 콘텐츠 보도가 부족함.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며 농촌재생, 농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음. 마을자원이 무엇이고 마을이 어떻게 나가갔으면 좋겠는지 이

야기 주민들이 좋아하고 이러한 농촌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주길 바람.

강문식 위원장

추석 명절이 돌아오고 있음. 명절 예전 같지 않음. 과거 전통문화에 대해서 되새겨 줄 수 있는 방송이 있었음 좋겠음.

이상으로 8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